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시 환경·보건 지원체제 구성에 관한 연구

김한규\*\* · 임택수\*\* · 이찬근\*\* · 임형준\*\* · 김민재\*\*

\*, \*\* 해양경찰청

## Study on emergency response scheme of the environmental health regrading major oil spill incidents

H.G. Kim\*\* · T.S. Lim\*\* · C.G. Lee\*\* · H.J. Lim\*\* · M.J. Kim\*\*

\*, \*\* Korea Coast Guard

**핵심용어** : 유류유출, 허베이 스피리트호, 우이산호, 환경보건지원단

**Key Words** : Oil spill, M/V Hebei spirit, M/V Wuyisan, Environmental health support team

### 1. 연구배경

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14년 GS칼텍스(우이산호) 송유관 파손 오염사고시에 유출되었던 원유(crude oil)의 주성분은 탄화수소류,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및 황화합물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유류 유출사고로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및 방제인력들이 유출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각종 건강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사건 발생초기 신속한 환경보건 대책이 즉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보건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현황 및 문제점

07년 허베이 스피리트 사고가 발생하고 마스크를 통해 오염현장이 보도되자 사고 다음날부터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밀려오는 동참분위기가 확산되자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이어졌고 이들을 제지하거나 통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기름오염으로 인해 모든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방제작업이 유일한 생업활동이 되게 되었다.

사고 이후에 중앙응급의료지원단을 비롯한 민관협력팀이 현지 응급의료활동을 수행하고 현장 역학조사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사고 발생 초기부터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보건적 영향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환경부 주관으로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환경보건 대응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환경보건 비상대응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크게 개선되거나 반영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4년 우이산호 오염사고시에는 원유 484kL, 납사 282kL가 유출되었지만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사고가 발생한 7일이 지난 14.2.7.에 시작되었다. 또한 사고 이후 한달간 인근주민 329명이 지역병원에 내원하였고 이중 22명이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사전에 진료가능한 별도의 지정병원이 없어 환자지원 및 현황관리 업무의 다소간 혼선을 초래하였다.

### 3. 정책제언

방제대책본부 설치가 필요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에 부여되는 임무·역할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개별 기관별로 역할을 하는 것 보다는 3개의 부처가 합동으로 가칭 “환경보건지원단”을 구성하여 방제현장의 작업환경 측정, 방제현장의 의료지원, 오염지역 국민환경보건조사,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건강영향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 및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방제작업자들에 대한 환경보건안전을 위한 통제지침을 마련하고 국가긴급방제계획과 지역방제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들이 방제작업에 투입이 가능한 VOCs 등 작업환경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해안방제작업은 생업활동이 불가능해진 지역주민들의 일종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깃뚝이 작업은 국제기금이나 보험사에서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초기에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한 그리고 통제된 범위내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주민인건비 보전 보다는 특별공공근로사업 마련, 지역수산물 소비촉진 등의 간접적 지원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오염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은 사고발생시 지역주민들에게 검진방법 등이 안내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병원을 지정하는 등 지자체-해경-지역병원간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Corresponding Author : khg50@korea.kr, 044-205-2191